

# 武漢大學圖書館學科 六十年史

— 文華圖專과 書隸華가 中國 圖書館  
事業史에 끼친 影響을 함께 評함 —

黃 宗 忠 著  
(武漢大學校 圖書館學科)

李 炳 穆 譯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80년은 武漢大學圖書館學科가 설립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학교는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초로 설립한 도서관학전공 교육기구로서 국내의 도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문에 우리가 이 학교의 발전과정을 돌아봄에 있어서 實事求是의 평가를 내림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 I.

武漢大學圖書館學科는 지난 60년간 두가지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거쳐왔는데 舊中國에서 29년간을 보냈고 新中國에서 31년간을 지냈다. 도서관사업의 발전과정으로 볼 것 같으면 근대도서관과 현대도서관의 두 시기를 거쳐왔고, 또 현재도 거치는 중이다. 학교자체의 변화로 볼 것 같으면 武昌文華大學圖書科, 華中大學文華圖書科, 武昌私立文華圖書館學專科學校, 武昌公立文華圖書館學專科學校, 武漢大學圖書館學專修科, 武漢大學圖書館學科의 여섯 단계를 거쳐왔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지난 60년동안 형식적인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있었다는 것, 둘째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낡은 내용은 끊임없이 바

---

이 論文은 武漢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0年 第6期 pp.78~85에 수록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論文을 소개해 준 中國 武漢大學圖書館學科의 晁則田 教授와 李林 教授(1981년에는 美國 시몬스大學 圖書館學情報學大學 學院의 客員研究員으로 滯美中이었음), 번역에 도움을 준 淸州大學校 圖書館學科의 金聖洙 教授와 서울 女子大學 圖書館學科의 嚴愛暎 助教에게 깊은 感謝를 表한다

꺼졌고 시대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내용이 끊임없이 생겨났다는 것, 셋째는 도서관 사업의 발전규율에 따라 학교도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文華圖專은 서로 다른 역사시대와 단계에서 내용과 형식상에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武漢大學圖書館學科의 전신은 武昌文華大學圖書科로서 1920년 3월에 설립되었다. 1925년 文華大學이 華中大學으로 바뀌면서 원래 文華大學의 한 科로 속해 있던 圖書科는 따라서 華中大學文華圖書科로 이름을 바꾸었다. 1927년 여름 華中大學이 휴교하였을 때에 文華圖書科는 여전히 단독으로 운영되었다. 1929년 1월 文華圖書科 이사회는 南京政府教育部에 專科學校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같은 해 8월에 인가를 받았다. 1929년 9월 華中大學은 다시 개교하였고 이때도 文華圖書科는 여전히 華中大學의 한 科로 있었다. 1930년 6월 毛坤은 「華中大學 文華圖書科 十周年記念」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圖書科는 본래 華中大學의 한 科였다. 1927년 여름 華中大學이 어떤 연고로 휴교하였기 때문에 圖書科는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專科설립을 인가받았다. 華中은 1929년 여름에 다시 개교하였고 이때도 圖書科는 여전히 그 한 科로 있었다. 무릇 당시의 헤어짐은 시세였고 오늘의 결합은 정인지라 그 情과 勢를 헤아려 보면 원래부터 그러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오늘의 勢를 살펴 보건데 물과 우유처럼 서로 같지 아니하니 識者들이 이를 꼭 염려하는 바이다. 合則雙美이고 離則兩傷하니 원컨대 다시 생각하소서.」 이러한 情때문에 1930년 6월 20일 학과이사회에서 「본 학과는 이미 國民政府教育部에 專科설립안을 제출하였다. 경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 단지 수업과정면에서는 계속 華中大學과 더불어 모든 것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1930년 12월 1일 정식으로 「武昌私立文華圖書館學專科學校」 도장을 사용하였고, 1931년에는 정식으로 華中大學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圖書館學專科學校가 되었다. 항일전쟁이 시작된 후인 1938년 가을, 학교를 重慶으로 옮겼으며 교사는 曾家岩求精中學을 빌어 임시로 사용하였다. 1941년 여름 교사가 폭격당하여 무너짐에 같은 해 10월 江北唐家街 蔘家花園으로 이사하였다가 1947년 武昌으로 옮겨왔다. 新中國 성립 후 1951년 8월 16일 인민정부가 文華圖專을 인수하여 사립을 공립으로 바꾸었으며 1953년 8월 院系에서 武漢大學으로 조정하였다.

1920년부터 1953년까지, 즉 武昌文華大學圖書科로부터 華中大學文華圖書科, 武昌私立文華圖書館專科學校, 武昌公立文華圖書館專科學校에 이르기까지 전후 33년

간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왔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총괄하여 말한다면 항일전쟁 이전에는 비록 학생수는 적었지만 모집한 학생들은 대학 2년 수료생으로 입학후 文科와 圖書科 3년 과정을 겸하여 배우게 해서 학생의 질이 비교적 높았고 교수의 자질이나 교육의 질도 비교적 높았다. 1940년에는 모집규정을 바꾸어 고등학교 졸업생을 모집하고 학제를 2년으로 개편하여 교육의 질이 다소 낮아졌다.

文華圖專의 33년간 학교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

행정조직 : 1920년 武昌文華大學圖書科가 설립된 후 胡慶生이 科주임을 맡았다. 1928년 11월 胡慶生이 科주임을 사직하고 교수직만 전담하였으며, 미국인 書隸華가 科주임을 대리하였다. 1929년 봄에는 沈祖榮이 科주임을 대리하였다. 1930년 專科學校로 독립한 이후 1951년 8월인민정부가 학교를 인수할 때까지 沈祖榮이 교장대리 교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 이 기간동안 교무주임은 查修, 徐家麟, 汪長炳, 毛坤 등이 맡았다. 인민정부가 인수한 후로부터 武漢大學으로 조정되기 전까지 壬自申이 교장직을 맡았고 沈祖榮, 甘蓮笙이 부교장직을 맡았다.

교육계획과 교육내용 : 당시 국외의 비교적 선진적인 경험을 받아들여 중국의 실체와 결합시켰다. 미국은 세계에서 도서관학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였다. 1887년 1월 5일에 개교하여 듀이가 경영하던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학과가 많은 여학생을 모집하자 대학측은 이를 반대하였고 이에따라 1889년에 뉴욕주립도서관학교로 독립하였다. 중국의 도서관학 미국유학생 제1진은 바로 이 학교에서 배웠다. 그런 관계로 1920년 文華大學이 圖書科를 창설하였을 때 곧 뉴욕주립도서관학교 학제를 모방하여 대학 2년을 수료한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학제는 3년으로 하였다. 도서관 학생들도 문과학생이므로 문과의 모든 교과과정을 배워야했기 때문에 맨 처음 개설한 도서관 교과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였고 교재도 대부분 미국 것을 채택하였다. 1928년에는 처음으로 중국 것과 서구 것을 결합한 학과체계를 세웠다. 주요 교과과정으로는 中國目錄學, 中文參考書學要, 西文參考書學要, 中文書籍選讀, 西文書籍選讀, 中文書籍編目學, 西文書籍編目學, 中文書籍分類法, 西文書籍分類法, 現代史料, 圖書館經濟學, 中國圖書館史略, 西洋圖書館史略, 圖書館行政學, 各種圖書館研究, 圖書館建築學, 西文打字法, 各種字體書寫法, 實習, 特別講習 등이 있다. 이러한 학과체계가 세워진 이후에는 도서관의 기본 이론이나 기술이 모두 발전하였고 그 내용도 비교적 중국의 실체와 맞았다. 1940년에는 학생모집을 대학 2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으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으로 바꾸었고 학제는 3년에서 2년으로 개편하였다. 文華圖專은 1930년부터 1년제 강습반을 단속적으로 몇 해 운영하였는데 입학자격은 대학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하였다. 1940년부터는 문서관리과를 두었으나 이도 역시 단속적이었다.

교수진의 자질과 역량 :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고 사회 저명 학자를 초빙하여 수업하였다. 교수진은 수는 적었으나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沈祖榮, 胡慶生, 查修, 徐家麟, 汪長炳 등의 미국 유학생이었고, 둘째는 초빙한 소수의 외국인 교수였다. 당시 학교 경영자들은 「구미 각국의 도서관사업이 나날이 새롭게 변모하나 학교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본교 교과과정을 바꾸어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적절한 성과를 거두게하려면 서양도서관학의 석학들이 여기에 와서 가르치지 않으면 구제할 길이 없다」고 여겼다. 미국인 교수 書隸華는 1920년부터 1931년까지 줄곧 본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밖에 1933년부터 1934년까지 본교에서 가르친 외국인 교수 가운데 미국인과 독일인으로서는 華馬麗, 裴錫恩, 克若維, 段格榮, 盈格蘭, 格拉基 등이 있다. 셋째로는 文華大學과 華中大學 圖書科 역대 졸업생들로서 이들은 文華圖專 교수진의 주력군이다. 이 외에도 저명 학자를 초빙하여 강의 또는 강연케 하였는데 이를테면 周鯁生, 聞一多, 查謙, 桂質廷 및 장서가 徐行可 등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文華圖專은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장려하였고, “群育討論會”를 조직하였으며, 「文華圖書館學專科學校委刊」을 진행하였다. 학교에서는 또 도서관을 설치하여 강의와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1929년 통계에 의하면 전문서적이 36,911권으로 그 중 14,834권은 중문서적, 22,077권은 서양서적이었다.

1953년 文華圖專을 武漢大學으로 옮겨오에 따라 교명이 武漢大學圖書館學專修科로 되었으며, 1955년에는 학제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가 1956년 武漢大學圖書館學科로 개편되면서 학제가 4년으로 되었다. 武漢大學圖書館學科는 고등학교졸업자를 입학생으로 모집하여 주로 省, 市, 自治區 이상의 공공도서관, 고등교육기관 도서관, 과학원계통 도서관에서 일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였다. 1960년부터 3년제의 도서관학 전수과 통신반을 설치하여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도서관에 재직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1978년부터 도서관학 정보학 영역에 3년제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동시에 1년제와 2년제의 도서관학 정보학 재직간부 연수반을 설치하였다. “四大現代化建設計劃”에 부응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준비한 4년제 과학기술정보전공은 1978년부터 정식으로 학생을 모집하였다. 현재는 도서

와 정보 이 두가지를 하나로 연결시켜 차츰 양자의 구별, 계선을 축소하고 인위적 차별을 제거하도록 시도함으로써 중국의 도서정보 현대화와 일체화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종합정책을 탐색하고 있다.

文華圖專으로부터 武漢大學으로 옮긴 후 27년간은 매우 중요한 발전을 한 단계였다. 첫째는 文華圖專이 旧 사회의 정치, 경제체제에서 자주독립하지 못했던 곤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규모가 확대되고 발전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전공은 하나에서 둘로 발전하였고 교수진은 10여명에서 50여명으로, 재학생수는 몇 10명에서 300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통신반은 552명, 대학원생은 16명으로 증가하였다. 27년간 배출한 졸업생수는 약 1,000명으로 文華圖專이 33년간 배출한 총수의 2 배를 넘었다. 그 밖에 졸업 혹은 재학중인 통신반 학생은 723명이나 된다. 셋째는 학교 운영형식을 다양화시켜 本科, 通信班, 研修班, 大學院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53년 이후 27년간의 발전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발전이었고 진전이었지만 심한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였다. 이를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는 1957년 이전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소련의 경험을 학습하여 구 체제와 내용을 바꾸고 도서관사업 건설 사상과 소련 도서관학의 어떤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레닌을 학습하여 사회주의 도서관학 교육체계의 건립에 발판을 다졌다. 그러나 1957년 이전 소련 도서관학교육이 공공도서관 인재 양성에 치중하고 과학도서관 인재 양성을 소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두번째 단계로는 1958년부터 “文化大革命”전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黨의 교육방침에 따라 사회주의 도서관학 교육체계를 모색하였다. 黨의 교육방침은 정확하였으나 우리의 인식은 단편적인 것이어서 노동과대현상을 나타내고 紅과 專의 관계(홍위병과 문화도전과의 관계)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지나치게 左에 치우쳤던 관계로 한때는 교육의 질과 양이 떨어졌었다. 1961년 “高教六十條”를 실시한 이후는 교육의 질량과 연구의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었다. 세번째 단계로는 “文化大革命”이 있었던 10년간이다. 林彪, “四人幫”등 극좌노선의 干擾破壞, 是非顛倒때문에 도서관학교육은 6년간이나 정체 또는 휴업상태에 이르렀었다. 학생모집도 없었고 교수진도 흩어졌으며, 자료는 산실되고 연구는 정지되었다. 1970년 전국의 많은 대학이 다시 문을 열고 학생을 모집할 때도 도서관학전공만은 여전히 휴업한 전공대열에 끼어 있었다. 1972년 학생을 다시 모집하였으나 학제는 2년으로 내려

졌고 일부과정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네번째 단계는 1976년 “四人幫”을 분쇄한 이후로서 소란에서 정상을 되찾고 옹고 그름을 가린 다음이다. 학제는 2년에서 4년으로 회복되었으며 “四化”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 전공을 신설, 학생을 모집하였고 도서관현대화를 교육계획에 포함시켰다. 1980년에는 도서관학통신반전수과가 부활되었다. 국제학술교류도 더한층 확대되었다. 일부 교수들은 국외로 파견되어 연수를 받거나 사찰을 하였고, 미국 시몬스대학도서관학정보학대학원의 조세핀 광교수는 1978년과 1980년 두차례 본교에 와서 강의를 하였으며, 영국도서관의 萊恩, 莫里斯, 伯納德 교수도 1980년 학교를 방문하였거나 강연을 하였다.

## II.

武漢大學圖書館學科 창립 60주년을 기념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書隸華라는 미국 친구이다. 書隸華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곧 文華圖專 평가의 전제인 동시에 중요부분이다.

막스주의에서는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의 주요 사회실천과 이런 사회실천으로 발생한 결과로서 그 인물의 공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書隸華는 어떤 인물인가? 그녀는 文華圖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가? 실천은 그녀의 공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므로 아래에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書隸華의 원명은 Mary Elizabeth Wood로 1862년생이며 미국 뉴욕 사람이다. 일찌기 미국 보스턴의 시몬스大學圖書館學科를 졸업하고 1900년 5월 16일 중국에 와서 武昌文華大學의 교수, 文華圖專의 이사회 이사, 文華圖專의 교수를 역임하였고 1928년 11월부터 1929년 봄까지 文華大學圖書科 주임대리직을 맡았으며 1931년 5월 1일 武昌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書隸華는 중국 도서관사업을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헌은 역시 文華圖專을 창설하고 발전시킨 일이다. 그녀가 중국에 있는 31년 동안의 행적은 대충 다음과 같다. 처음 10년은 文華大學에서 교편을 잡았고 文華大學 도서관실을 창설하였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정식으로 文華公書林(圖書館)을 건립하였다.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文華大學圖書科를 창설하

였다. 31년이 지난 다음 중국에서 서거하였다. 그녀는 일생동안 중국을 도와 도서관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뜻을 두었고, 文華圖專을 창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앞 20년간은 주로 文華圖專을 창립하고 운영하고 선전하는 일과 교수를 양성하는 일에 힘썼고, 뒤 11년간은 주로 文華圖專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직접 교육에 종사하여 도서관 전문 인재를 양성하였다.

書隸華가 文華圖專의 건립과 발전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는 주로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武昌文華公書林의 창설, 근대 도서관의 확장, 근대 도서관학의 보급 및 근대 도서관학교육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書隸華가 배운 것은 도서관학이었다. 따라서 비록 文華大學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나 이에만 그치지 않고 시종 자기가 배운 전공을 살려 중국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그녀는 “도서관은 학교와 사회가 필요로하는 기구이지만 중국은 아직 그 필요성을 제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 예로 바로 눈앞에 있는 武昌만 하더라도 省會소재지로서 개인 장서루도 있고 “문화홍성의 武昌城”이란 별칭도 있지만 文華大學조차도 도서관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들었다. 그녀는 사재를 내놓기로 결심하고 1903년 文華大學에서 文華公書林을 구상하여 일단 도서실을 설립하였다. 이 도서관은 개가식으로 자료를 열람시켜 武漢三鎮으로부터 많은 독자를 끌어 들었다. 1910년에 정식으로 “文華公書林”이란 이름을 붙였다.

1903년에 시작한 文華公書林은 중국 근대 도서관의 시초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에게 개방했다는 점이다. 公書林은 비록 文華大學에 있었으나 文華大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학생과 교수는 물론 武漢三鎮 공중에 게도 개방하여 마치 台灣省의 張錦郎, 黃淵泉이 編한 「中國近代六十年來圖書館事業大事記」(1974年 台灣商務印書館版)에서 말한 것 처럼 “이것은 중국 최초의 미국식 공공도서관”이었다. 2. 독자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개가와 대출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 선행이 없었던 일이고 구미에서도 단지 소수의 도서관에서만 시행중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文華大學長인 영국인 翟雅各等 영·미국적 교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심지어는 公書林의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는 위협도 받았다. 하나의 新과 旧, 민주 자유와 봉건 보수의 투쟁이 潛移默化의 작용을 일으켰다. 3.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公書林은 관외대출을 통하여 독자에게 문화와 과학지식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

을 뿐 아니라 강연회, 독서회, 故事會, 음악회를 주최하여 대중교육을 단행하였다. 장서를 백분 활용하여 거리가 비교적 먼 독자의 요구에도 응했다는 점이다. 書隸華는 1914년 “순회도서관”을 설치하여 公書林과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학교와 지역을 설정한 다음 그 곳까지 찾아 가서 자료를 이용시켰다. 책을 문전까지 보내주고 정기적으로 새책을 바꾸어 주어 여건이 허락치 않아 公書林에 와서 책을 볼 수 없는 독자들도 책을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초 文華公書林의 창설자 書隸華가 초점을 독자에게 두어 도서를 사회에 개방하고 開架借閱에 門前送書하여 중국 봉건 藏書樓에 처음으로 도전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의 도서관사업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지만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70년간 중국 도서관은 몇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비록 많은 발전을 했으나 봉건 장서루 사상만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文華公書林은 중국 근대 도서관의 시초였을 뿐만 아니라 文華圖專의 건립을 위한 실험기지이기도 하였다.

둘째, 文華圖專을 창설하기 위하여 교수를 양성하였다. 書隸華는 “도서관사업은 반드시 전문 인재가 있어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열람자로 하여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겨 이 땅에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로 결심하였다. 전문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수가 있어야 하므로 1914년과 1917년에 그녀는 文華大 졸업생이며 文華公書林 직원인 沈祖榮, 胡慶生 두사람을 미국 뉴욕주립도서관학교에 보내 도서관학을 전공하도록 도왔다. 1917년과 1919년 沈, 胡 두사람은 각각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셋째, 武昌大學圖書科를 창설하였다. 書隸華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沈, 胡 두사람의 협조와 학교의 지지를 얻어 미국 뉴욕주립도서관학교 제도를 모방한 武昌文華大學圖書科를 1920년 3월에 창립하였다. 제 1회 졸업생으로는 文華大學文科學生이 6명 있었다.

넷째, 庚子배상금을 돌려받아 文華圖專의 유지비를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書隸華는 “미국이 반환한 제 1차 경자배상금으로 淸華學校를 설립”한 성과가 매우 컸음을 목도하고 1922년 제 2차 경자배상금을 반환해 줄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하자고 발기하였다. 그녀는 중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명사와 학자를 만나 보고 150명에 달하는 서명 찬성자를 얻었다. 1923년 書隸華는 제 2차 경자배상금을 돌려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워싱턴에 수개월간 머물면서 여기저기 사

방으로 호소하고 국회 양원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녀가 만난 인사는 대통령 외에 양원의원만도 무려 435명이나 되었다. 1924년 5월 21일 미국 상하 양원회의에서 제 2차 경자배상금 반환 법안이 통과된 후 9월에는 중미 양국이 경자배상금의 용도를 다룬 “中華教育基金理事會”를 개최하였다. 1925년 6월 “中華教育基金理事會”는 제 1차 회의를 열어 경자배상금의 일부를 “도서관과 같은 항구적 성격의 문화사업을 촉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때부터 文華圖書은 비교적 고정된 자금을 받게되어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섯째, 직접 교육에 종사하였다. 書隸華는 1920년 文華大學圖書科 설립때부터 1931년 서거때까지 줄곧 도서관학과에서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중국 도서관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공헌하였다. 그녀는 또 1926년 10월 “中華圖書館協會”를 대표하여 미국도서관협회 50주년 대회에 참석하였고, 1927년 가을에는 중국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영국도서관협회 50주년 대회에도 참석하였으며,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의 15개 발기국중 하나인 중국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말한다면 書隸華는 일생을 중국 도서관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중국 최초의 도서관학교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근대 도서관사업에서도 역시 공헌한 바가 크다. 書隸華는 31년간 武昌에 머물러 살았는데 그녀와 접촉이 있었던 선배들의 회고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모든 일에 열심이었으며 하나 하나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생활은 검소했고 봉급의 대부분은 文華公書林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던가 또는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썼다. 그녀는 중국 도서관사업을 위해 자신의 終身大事를 돌보지 않고 일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말년에는 퇴직하여 미국으로 돌아가 쉴 수 있었으나 중국에서 일생을 보낼 것을 고집하였고 끝내는 武昌에서 병사하였다.

이와같은 중국 도서관사업을 위해 유익한 공헌을 한 미국 친구에 대하여 실은 어떠한 爭議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오래동안 극좌사상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靑紅黑白을 가리지 않고 간단한 방법을 택하여 평가를 한 것이다. 즉 무릇 제국주의 국가에서 중국에 온 사람과 제국주의와 관계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좋은 사람이 없다하여 그녀를 “제국주의 분자,” “중국 도서관사업에 대한 미제국주의 침략의 급선봉”이라 비난하고 일격에 넘어뜨려 인민가운데서 그녀의 본래 면목을 상실케 하였다.

역사유물주의자는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며 실사구시를 견지한다. 아편전쟁 후

중국은 일찌기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가 된 적이 있다. 이때 제국주의 국가에서 중국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인민혁명을 진압하는 식민주의자와 제국주의 분자가 있었고 중국인민의 재산과 문물을 노략질하는 강도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중국인민을 동정하고 중국인민혁명을 지지하는 친구도 있었다. 또한편으로는 중국인민혁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중국인민의 처지와 고통을 동정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인민을 위해 일하며 사회역사 진전에 촉진제가 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의 좋은 친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공적 역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엄격히 그들을 식민주의자, 제국주의분자, 강도와 구분하여야 하며 친구를 적쪽으로 몰아부쳐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書隸華가 곧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비록 중국인민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자신의 일생을 중국 도서관사업에 바쳤고 중국 근대 도서관사업 발전에 촉매작용을 하였으므로 그녀의 공적은 응당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文華圖專을 어떻게 정확히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한 문제이다. 복잡성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文華圖專 33년 역사중 29년간을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에서 지내 온 점이고, 둘째는 文華圖專의 설립자 중 한사람이 미국인 書隸華라는 점이고, 셋째는 文華圖專이 해방전 29년간 진공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모두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文華圖專의 평가에 대해서는 두가지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다. 하나는 文華圖專의 역사적인 활동을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이 두가지는 모두 긍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는 관점이다. 즉 일면으로는 도서관사업사상 인재를 양성하고 근대 도서관학을 보급하고 중국 도서관사업 근대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 면이 있으나 다른 일면으로는 이것도 한계성이 있다는 관점이다. 또다른 관점은 文華圖專의 역사활동은 부정적이어야만 한다는 관점이다. 즉 근본적으로 이렇다 할 양면성도 없고 도리어 단지 반동적인 일면이 있을 뿐 역사활동에 적극적인 면이 없다. 왜냐하면 “文華圖專은 제국주의분자 書隸華가 창설하고 주관했고” “미국 뉴욕주립도서관학교를 모방하여 학교를 운영했고” “배출한 사람들은 미 제국주의와 국민당 반동파를 위해 봉사했고” “보급한 것은 서방 도서관사업이었기”때문이다.

따라서 文華圖專은 “미제국주의가 중국문화를 침략하려고 쌓은 보루가운데 하나” 일 뿐 긍정적인 가치란 조금도 없다는 관점이다.

왜 文華圖專의 평가에 대하여 이와같이 완전히 다른 두가지 관점이 있는 것일까? 필자는 그 원인이 주로 평가의 기준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후자의 평가는 주로 극좌사조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기준으로 간단히 평가한 것이다. 정치적 기준에 따르면 무릇 반봉건 반식민지의 旧中國에서 직접적으로 무산 계급혁명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국민당을 위해 봉사한 자는 긍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 즉 제국주의와 어떤 연관을 맺으면 곧 침략성을 띤다는 것이다.

막스주의는 실천은 진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하였다. 역사상에 나타난 어떤 현상과 사건은 당시의 사회조건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한 역사 사건에 대한 평가는 그 사건을 역사발전에서 떼어 내어 따로 평가할 수 없고 그 사건이 전체 사회발전에 미친 사회적 효과를 관찰해야 한다. 과학과 교육을 다루는데는 더더욱 간단히 정치와 동일시 해서는 아니되며 과학 자체의 발전규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도서관학과 도서관학교육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동시에 실천성과 기술성이 매우 강한 과학이다. 이경우 정치란 하나의 측정 기준이지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그러므로 文華圖專을 평가하는데는 정치 기준 외에 아래와 같은 매우 중요한 세가지 기준이 있다.

(一) 사회발전과정에 부합하며 시대와 인민의 필요에 부합한가를 살펴 부합하면 진보적이라 보고 긍정하여야 한다.

(二) 일으킨 사회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 사회역사의 전부 또는 어떤 일부에 대해 추진 또는 촉진 작용을 일으켰으면 곧 긍정하여야 한다.

(三) 과학 자체의 발전규칙과 부합하는가를 살펴 부합하면 곧 진전이라 보아야 한다.

위의 기준으로 평가의 근거를 삼을 때 文華圖專이 역사상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있는가? 필자는 있다고 볼 뿐 아니라 또 충분히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이유 세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최초의 근대 도서관학전공 교육기구로 창립되었으며 아울러 현대 도서관학전공 교육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도서관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전문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그럴려면 또 도서관학전공 교육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시대의 요구이고 도서관사업 발전의 규율이다. 방향은 틀림

없었으니 역사가 이미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전공기구의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며 사회의 수요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것이다. 武昌文華大學圖書科는 설립 이래 60년간 도서관학 전공 과정이 없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20여개 대학에 이러한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 文華圖專의 건립이 중국 도서관학교육 발전사상에 얼마나 심원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유물주의자로서 역사를 割斷하는 것을 반대하며 과학문화의 계승성을 인정한다. 文華圖專을 중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도서관학 전공의 하나로 삼는 이유는 文華圖專이 중국의 근대 도서관학교육의 발상지이며 개창지이기 때문이다. 또 특별히 제기할 것은 해방전 文華圖專 29년간 국민당정부가 도서관학교육을 중시하지 않았고 도서관사업을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경영조건이 어려워 매우 곤경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文華圖專의 뒤를 따라 전국에서 많은 도서관학전공 교육기구가 설립되었지만 대부분 도중에 하차하였다. 예로 상해 國民大學에서 1925년 도서관과를 설치하였으나 1926년 중단되었고 金陵大學도 1928년 도서관과를 설치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중단되었다. 金陵大學圖書館科는 1940년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겨우 두학기 운영하다 다시 중단하고 말았다. 1941년에는 國立社會教育學院도 圖書博物科를 설치하였지만 이 역시 얼마되지 않아 중단되었다. 해방전에 설립된 도서관학전공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은 단지 文華圖專과 1947년에 설립된 北京大學圖書館專修科 뿐이다. 文華圖專이 旧中國에서 살아남아 29년간 분투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운영비와 교수진의 부족 등 어려운 처지에서도 비교적 정규적으로 운영되었고 학생의 학업수준도 비교적 높았던 것은 文華圖專을 주로 이끌어 온 書隸華와 沈祖棻 등의 사업심이 어떠 했던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근대 도서관학을 도입하고 보급하여 수천년간 봉건 장서루로 내려온 중국의 도서관사업을 신속히 근대 도서관으로 도약케 하였다. 文華圖專은 설립을 준비한 때부터 설립을 한 뒤 일, 이십년간 근대 도서관학을 도입하고 보급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文華圖專을 위해 양성한 교수와 1917년 미국에서 배우고 귀국한 沈祖棻, 胡慶生과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근대 도서관 개념의 “新圖書館運動”을 제창하고 추진하였다. 그들은 도서관에 관한 각종 필름, 모형, 통계도표 등을 휴대하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강연하였으며, 근대 도서관과 봉건 장서루의 차이와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연하였다. 근대 도서관

의 이론을 소개하고 미국 도서관을 널리 알렸으며, 봉건 장서루의 사회공개를 경시하는 풍조를 공격하고 도서관을 귀족, 학원식으로부터 사회교육기구로 변모시키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봉건 장서루를 반대하고 근대 자산계급식의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것이었다. 1925년 신도서관운동이 널리 보급되는 움직임이 엿보였고 많은 비도서관계 인사들도 “도서관운동의 물결”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中華圖書館協會가 1925년에 설립되고 각종 유형의 도서관도 502개소로 늘었다. 외국 근대 도서관의 이론과 기술을 모두 수입, 중국 실제의 근대 도서관학과 결합시킴으로서 도서관은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다음, 文華圖專을 설립한 후 한편으로는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근대 도서관을 전파하고 근대 도서관학의 전문 인재를 양성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29년 「文華圖書館季刊」을 발행하였는데 이 정간물은 1932년 「文華圖書館學專科學校季刊」으로 개제하여 총 9권 2기 까지 간행하다가 1937년에 휴간하였다. 이 간행물은 미국과 서구의 근대 도서관학을 소개하는 기사는 물론 상당한 편수는 당시의 중국 도서관사업을 논술하고 있다. 文華圖專은 1920년부터 1937년까지 근대 도서관학 전문서적 18종을 출판하였는데 그 중 9종은 미, 영, 일의 것을 번역한 것이고 나머지 9종은 文華圖專의 교수와 학생의 저술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文華圖專은 역사적으로 근대 도서관학의 보급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어떤 이는 “이것은 서방자산계급 도서관학을 선양한 것,” “미국인들의 것을 베끼, 미국것을 모방한 것,” “제국주의 문화사상을 중국 도서관사업에 침투시킨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왜 그러한 관점이 출현한 것일까? 필자는 주요 원인이 그 당시의 역사적 조건과 사회환경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전면적으로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당시의 역사조건과 사회환경은 어떤 것인가?

첫째, 중국 도서관사업은 매우 낙후하였고 봉건 장서루는 붕괴상태에 있었으며 근대 도서관학은 봉아기에 있었다. 둘째, 미국 스위스 등 서방국가의 근대 도서관사업은 비교적 성숙하였고 발달하였다. 예로 미국의 도서관학교육을 보면 1929년에 이미 도서관학교가 57개, 학생은 1,347명이나 있었다. 레닌은 일찌기 1913년 “국민교육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1911년 당시의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찬양하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셋째, 소련은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한 후 사회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레닌은 1917년 11월 “페드로그레드 공공도서관 업무를 논

함”이란 글에서 “다년간 짜아르제도가 국민교육을 파괴했기 때문에 페드로그레드 도서관업무는 매우 엉망으로 되었다.” “반드시 서방 자유국가에 근거해서, 특히 스위스와 미국에서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 즉각 무조건 근본 “개혁을 진행하라”고 지적하였다. 1918년 6월 레닌은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위원회는 교육인민위원부가 소련에서 건설하는 도서관사업에 관심이 부족함을 질책하는 바이니 이 부서는 즉각 아래의 유효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1)소련 도서관 사업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할 것. (2)스위스와 미국의 제도를 채택할 것.”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왜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도서관제도를 채택하고 학습하는가? 그 이유는 당시 사회조건으로 봐서 미국이나 스위스가 선진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된 소련도 미국 스위스의 도서관제도를 여전히 배우고 채택하는 마당에 소련보다도 낙후한 반봉건 반식민지 국가인 중국이 미국이나 스위스의 근대 도서관을 도입하고 보급한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책망해서는 아니된다. 봉건 장서루에서 근대 도서관으로의 전환은 도서관사업 발전사상 막을 수 없는 필연적 규율이며, 전환의 속도가 가속된다면 이는 일종의 진보이지 반동이 아니다. 이상으로 본다면 文華圖書이 근대 도서관학을 도입하고 보급한 일과 봉건 장서루를 근대 도서관으로의 전환을 가속시킨 일은 사회발전과정에 부합하고 사회조류에 부합하며 도서관 사업 발전규율에 부합함으로써 이는 곧 일종의 진보적 표현으로 보아야 하고 심분 긍정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의 근대, 현대 도서관사업을 위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文華圖書이 해방 전후 33년간 양성한 사람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 숫자는 현재 알기 어려우나 專科 강습반 등 각종 졸업생을 대충 계산하면 380명에서 400명에 이른다. 3년제 專科는 1922년 제 1기 졸업생에서 1933년 제 10기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12년간 총 69명이었고 1934년에서 1941년까지 8년간의 졸업생은 58명이었다. 즉 1922년에서 1941년까지 총 12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 專科는 모두 대학 수료 2년 이상자가 입학하여 3년간을 학습한 후 졸업을 하였다. 후에 旧 教育部에서 전 과학교의 학제를 5년으로 정했는데 그 중 3년은 고등학교 수준이었으므로 文華圖書은 1940년부터 고졸자를 모집 하였고 학제도 2년으로 하였다. 1942년부터 1948년까지 이런 유의 전과 졸업생은 총 92명이었으며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졸업생은 110명이었다. 1년제 강습반은 1930년부터 1938년까지 졸업생이 모두 49명이었다. 이 학교의 해방전 졸업생들은 대부분 국내 도서관계에서 근무하였다. 극소

수만이 미국 유학을 갔거나 국외 도서관에서 근무했으며 또 일부 졸업생은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였다. 1931년 통계에 의하면 71명 졸업생 중 국내 도서관 근무자는 35명, 미국 유학 또는 국외 도서관 근무자는 7명이었고, 1930년 통계에 의하면 33명 중 29명이 각종 도서관에서 관장이나 주임직을 담당하였다. 해방 후의 많은 졸업생들도 여전히 열심히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대다수는 이미 중견이 되었고 어떤 이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장한 모습으로 계속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중국 사회주의 도서관사업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해방전 미국에 유학하였거나 또는 국외 도서관에서 일한 사람은 그 수가 매우 적었다. 어떤 사람들은 新中國 성립 후 속속 조국으로 돌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모종의 이유로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조국의 도서관사업에 관심을 갖고서 중국과 거주국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중이다. 예를들면 미국 하바드 燕京學社도서관의 설립자인 裘開明은 바로 1922년 文華大學圖書科 제1회 졸업생이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房桃檻은 1930년 華中大學文華圖書科 제8회 졸업생이다. 미국 아시아학회 동아시아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자 프린스턴대학도서관 부관장겸 동아시아서관장인 童世翊은 文華圖專 1933년 제10회 졸업생이다.

文華圖專은 중국 도서관사업을 위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중국 근대, 현대 도서관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그 업적이 긍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양성된 사람들이 미제국주의와 국민당 반동파를 위해 일한다」 하여 긍정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국좌사조의 영향이라고 여긴다. 해방전 文華圖專에서 배출한 인재 가운데 극소수만이 직접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무산계급혁명에 투신했으며, 일부는 일본제국주의와 한패가 되거나 국민당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전공을 버리지 않고 중국 도서관사업을 위하여 봉사했으며, 해방후에는 사회주의 도서관사업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이것은 주요한 측면이다. 중국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소수의 국외 유학생 또는 국외 근무자는 이러한 반봉건 반식민지의 旧中國에서 쉽게 이해가 된다. 동시에 사회발전에 의거하면 나라와 나라사이 민족과 민족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장래에도 있을 정상적인 교류이다. 또 그들 가운데는 국민당 통치에 불만을 품고 귀국하지 않다가 新中國 성립후 서둘러 귀국하여 사회주의 도서관사업에 투신한 사람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진보적 행동이다. 현재도 일부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들은 조국 부강과 중국 도서관사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중국과 거주국의 문화교류와 우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헌하

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文華圖專이 역사에 끼친 몇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긍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文華圖專의 모든 것을 긍정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文華圖專의 해방전 29년간의 모두 좋았다면 그것은 부정확한 것이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文華圖專이 반봉건 반식민지의 旧中國에서 29년간 지내왔기에 매우 큰 한계성이 있다. 文華圖專은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자체 자금이 매우 적어 경제적으로 자주 독립하지 못하고 매우 많은 비중을 외계의 모금, 원조등에 의지하여 학교운영을 유지해 왔다. 만약 外界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계속 유지해 나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지도와 편달로 성장한  
폐사는 항상 여러분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쿠폰 대행기관
- 단행본 및 학술잡지
- 구미서적 수입판매

科學書籍센터

SCIENCE PUBLICATIONS CENTER

서울特別市 鍾路区 鍾路 1街 21番地 光化門私書函 333号

電話 (723) 6719 (725) 0934